

환경친화기업, 녹색기업으로 명칭 변경

앞으로 환경친화기업의 명칭이 녹색기업으로 변경된다.

환경부는 1995년부터 지정·운영해 오던 환경친화기업 제도의 명칭을 녹색기업으로 변경한다고 4월14일 발표했다.

2010년 1월 제정·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조치이다.

환경부는 14일 서울 서초구 메리어트호텔에서 녹색기업 출범식을 열고 녹색기업협의회 임원사인 삼성전기 등 9사에 새 명칭이 담긴 지정서와 현판을 수여했다.

<화학저널 2010/04/15>